

# 가족이 함께 부르는 '썸머 싱어즈 맘마미아'

80대 할아버지와 10대 손녀, 며느리와 시어머니, 시누이와 올케사이. 다양한 관계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들이 하나의 합창단으로 무대를 앞두고 있다. 오직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모인 25가족, 63명의 '썸머 싱어즈 맘마미아' 합창단은 오는 27일 오후 6시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합창무대를 선보인다.

지난 20일 오전, 광주시립문화예술회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을 찾았다. ABBA의 노래 '맘마미아'가 흘러나오는 연습실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부터 의자에 발이 닿지 않는 초등학생까지 모두 60여 명이 연습에 한창이었다.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는 단장의 지휘자를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해 보였다.

가끔 가사를 따라가지 못해 악보를 보는 일도 잦았지만, 공연을 앞둔 마지막 연습이기에 이들의 진지한 모습은 프로 연주자 못지 않았다.

'Dancing queen'은 안무 연습도 더해졌는데, 아빠들은 쓱스라웃지 안무 연습에 팔을 뻗쪽뻗쪽이라는 자위자의 말에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아빠와 함께하는 합창 연습에 아이들은 덩달아 신이 났다. 어떤 어른들은 너무 흥이 난 나머지 자신의 파트가 아닌데도 노래를 부르다 지책을 당하기도 한다. "우리가 즐거우면 됩니다"라는 박주현 지휘자의 말처럼 단원들은 흥겨운 연습을 이어갔다. 이날은 총연습으로 무대 동선을 확인하고 안무를 다시 한번 숙지하면서 공연 당일 협연할 밴드와의 첫 협주도 진행됐다.

최고령 이충식(80)씨는 딸 그리고 손녀 3명과 함께 합창단에 참여했다. 이씨는 "다행히 다들 노래수준이 비슷해서 다행이었다"며 "손녀들과 좋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영어합창 무대  
할아버지와 손녀, 며느리와 시어머니 등  
25가족 63명 참여... 27일 광주디자인진흥원

추억을 남긴 것 같다. 새로운 삶을 사는 기분"이라며 웃었다.

김우성(45)씨는 딸 손에 이끌려 합창단에 참가했다. 김씨는 "매주 토요일 수업에 참여하느라 늦잠을 자지 못했지만, 아내와 딸, 아들 네가족이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썸머 싱어즈 맘마미아' 합창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준비한 특별강좌다. '영어'와 '합창' 두가지를 결합해 만든 콘텐츠로 지난 6월 집수를 받아 25가족을 선발했다. 생전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는 단원들이 대부분으로, 딸아이 손에 이끌려 참여했다는 아빠들도 있었고 가족들과 추억을 위해 참여했다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선발된 가족들은 지난 7월 2일부터 자기 목소리 알아보기, 음정과 박자 이해하기, 영어가사 발음법, 호흡과 발성, 무대 안무 등 영어로 된 노래를 부르기 위한 다채로운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맡은 박주현 지휘자는 미국 아리조나 대학에서 합창 지휘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이번에 자신이 갖고 있는 '합창'과 '영어' 두 가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합창단은 'Mamma Mia', 'Super Trouper', 'Honey, Honey', 'Dancing Queen', 'I Have A Dream', 'Waterloo', 'Take A Chance On

Me', 'Thank You For The Music' 등 8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박주현 지휘자는 가족들이 8주간 함께한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연령과 성별 구분 없는 가족끼리 펼쳐지는 합창 무대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번 공연은 격식이 없는 신나는 무대가 목표이지요. 사실 온 가족이 무대에 오르는 아마추어 무대이다 보니 관객수가 우려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연으로 연주자도 관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는 합창단은 가족, 친구, 지인 등 다양한 형식으로 꾸러질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 등 다양한 관계의 합창단을 만들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합창단 지휘자로 부임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예술과 교육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추진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합창단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박주현 지휘자



정경자 작가

'So, Suite'

##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에 정경자 작가

선민정 작가 '신진작가상'

제23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에 정경자(48·사진)작가가 선정됐다. 신진작가상은 선민정(29, 회화) 작가가 받았다.

광주신세계미술제는 광주·전남 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 발굴과 창작지원을 통해 지역미술문화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신세계에서 1996년부터 개최한 공모전이다.

장성 출신으로 중앙대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영국 에든버러대 석사과정을 졸업한 정 작가는 일상에서의 공간과 그 안의 사물들이 나타내는 이미지들을 재집합 사진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우연히 발견한 대상들의 파편적 이미지를 사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촬영한 'Drifting', 'So, Suite' 등의 연작은 드라마틱하고 비현실적인 세계를 포착한 듯 제시, 마치 회화 작품을 바라보는 착각을 갖게 한다.

광주 출신으로 동국대 미술학과와 홍익대 동양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한 선민정 작가는 유년 시절부터 식물과 함께 성장, 자연스럽게 자연을 작업의 소재로 활용해 왔다.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공존'에 대해 고민해온 작가는 '기호의 숲' 등의

연작을 통해 인간이 자연을 통해 자아의 존재와 생명력을 확인한다는 의미를 담아낸다.

대상 1000만원, 신진작가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이듬해 가을 별도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고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5시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두 명의 수상작가는 "광주·전남 출신이지만 지역에서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많지 않아 항상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미술제 수상작가는 제출자료(총 61건)의 개별 온라인 심사, 최종 협의 심사를 거쳐 1차 선정작가 8명을 선별했고 최종 현장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대상 작가를 선정했다. 심사에는 기혜경(부산시립미술관 관장), 노충현(작가), 안소연(미술비평가)씨가 참여했다.

오는 9월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리는 제23회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작가전에는 노은영, 서영기, 선민정, 설박, 송석우, 유지원, 이세현, 정경자의 작품이 작가들의 포트폴리오와 함께 전시 중이다. /김민은 기자 mekim@



가족과 함께하는 '썸머 싱어즈 맘마미아' 합창단이 광주문화회관 연습실에서 안무와 함께 합창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 김넷과트리오와 오희린 함께 '아트콘서트'

내일 광주문화공원 김넷과

한달에 한 번 열리는 김넷과 아트 콘서트 미술과 음악이 함께하는 클래식 무대다.

'김넷과 아트콘서트' 30번째 공연이 오는 25일 오후 7시 광주문화공원 김넷과(대인동 52-2)에서 열린다.

'THE AUDITION'이라는 이번 공연 주제는 지난 2021년 8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김넷과트리오 3기의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붙여졌다. 첼리스트 김지선, 피아니스트 이현주, 바이올리니스트 강하선은 마치 오디션을 치르는 듯한 연주를 선보인다.

또 이번 공연 이후로 김넷과트리오는 소프라노 김아람이 합류해 '김넷과트리오 스페셜팀'으로도 활동한다. 김아람은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파페라 레디스의 리더로 활동 중이다.

소프라노가 더해진 스페셜팀은 비교적 조망받지 못하고 있는 성악분야 활성화와 좀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스페셜팀은 윤학준 곡 '마중'과 벨리니의 곡 '아! 몇 번인가'를 선보인다.

아울러 '김넷과 영재발굴프로젝트' 일환으로 양운초 오희린 양의 첼로 무대가 마련된다.

오 양은 호남예술제 첼로 은상, 모차르트 콩쿨 광주지부 1등을 수상했다. 이번 무대는 지역의 실력있는 음악영재를 발굴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박헌택 후원회장의 뜻에서 시작됐다.

오 양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예술인복지지원 공청회  
내일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1차 광주예술인 복지지원계획 공청회'가 열린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개최되는 공청회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 예술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복지 지원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은 2021년 광주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1차 광주예술인복지지원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될 '제1차 광주예술인복지지원계획'의 세부 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1부에서는 2021년 광주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 발표하고 광주예술인복지지원계획(안)을 제안한다. 2부에서는 패널토론과 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돼 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광주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창작 안전망, 생활 안전망, 기반 안전망으로 구분된 '예술인 3대 안전망'과 이에 따른 '15대 세부과제'이다.

공청회 참여 희망자는 문화재단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또는 전화(062-670-5723)로 신청할 수 있다. 참석자는 50명으로 제한한다. '2022 광주예술인복지지원계획 수립 연구'는 연구진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희린

'김넷과 트리오'

## '아트센터 나비로 본 기술과 예술의 융합'

지맵, 25일 노소영 관장 강의... 업무협약도 체결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맵/Gwangju Media Art Platform)은 미디어아트 아카데미 강좌 '뉴미디어아트에서 NFT까지'의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에는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 '아트센터 나비의 20년사로 본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주제로 강연한다. 같은 날 G.MAP과 아트센터 나비는 상호협력력을 통해 미디어아트 분야의 건강한 환경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노 관장은 이번 강의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미디어아트센터이자 디지털아트 전문기관인 아트센터 나비의 전시·장제제작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등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프로젝트를 통해 아트센터 나비가 인공지능 기술을 탐구하고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소개하고 과학기술 기반 매체예술의 새로운 가능성과 문제점을 비롯한 비판적 시각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김민은 기자 mekim@kwangju.co.kr



노소영 관장

노 관장은 서울대 공과대학 재학 중 미국으로 건너가 윌리엄 매리대 경제학과와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거쳐 스탠퍼드대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세대학교 영산대학원 등에서 수학했다. 1991년 대전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아트 앤 테크놀로지' 기획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컴퓨터 예술분야에 입문, 1997년 위귀힐 미술관 2대 관장으로 취임, 이곳을 2000년 국내 최초의 디지털 아트 전문기관인 '아트센터 나비'로 재개관했다. 주요 저서로는 '내가 사랑한 디노베이터', '디지털 아트', '이것이 미디어아트다' 등이 있다. /김민은 기자 mekim@kwangju.co.kr